

# 도심 전역 도시재생 ‘착착’

# “제도약 하는 원년 될 것”

### 익산시, 주민 중심... 삶의 질 향상·정주여건 개선 기대

익산 전역에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다.

시는 노후된 원도심과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부터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재생까지 성공적으로 완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농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7월 시는 중앙과 송화, 인화, 남중동 등 원도심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먼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중앙동 일대는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선 주민 주도 문화 사업들이 추진되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사회·경제 어울림센터와 세대공간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완료돼 원도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음식·식품 교육문화원과

조성되며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푸른솔 커뮤니티센터와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을 추가로 조성해 이를 거점으로 주민 주도 사업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근대역사 자원이 산적해 있는 인화동 남부시장 일대는 44만세운동 기념광장 정비와 전통시장 상생협력마당 등이 조성됐으며 근대역사문화체험센터와 송리문화공방, 한복거리 정비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밀착형 교육·문화·복지거점 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167억원이 투입되는 남중동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골목길, 도로 가로경관 정비, 여성특화 창업스쿨 조성 완료됐으며 생활 속 어울림플랫폼과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익산=이재준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 인사... 흠어진 민심 하나로 통합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임준 군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흠어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

강 시장은 7일 오전 군산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당선소감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지지로 다시 한번 군산시장으로 당선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는 중단없는 군산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의 바람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군산경제 번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순간 당선의 기쁨보다는 ‘군산경제 재도약’이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고 있다”며 “민선 8기에는 1,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소독 높은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꿈과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창업수도 군산 추진, △농어민 소득을 높이는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 △군산사랑상품권·배달의

## 군산시, 여성 범죄 피해자에 안심 물품 지원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

군산시가 스톱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스톱킹 범죄·데이트 폭력 등으로 범죄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 중 설치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안심물품인 ‘스마트 초인종’을 지원할 계획

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안심물품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물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스마트 초인종’은 출입구에 설치해 스마트폰과 연동,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화까지 가능한 제품

이다.

아간에도 적의선 활용으로 외부인을 확인 가능해 여성들의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여성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에서의 범죄피해 및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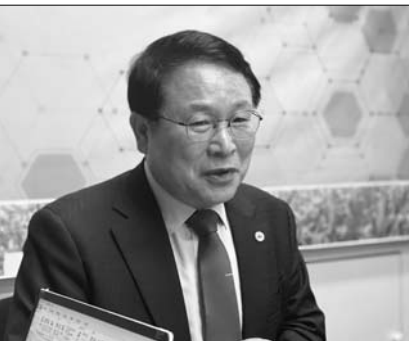
##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 정현을 익산시장, 업무 복귀... 새로운 공약 사업 속도 낼 것

정현을 익산시장이 업무 복귀 첫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현안과 새로운 공약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7일 지방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60여일 만에 당선인이자 현직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정 시장은 청사 첫 출근과 함께 간부회의를 갖고 부재중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국소단별 시급한 현안을 행기는 등 빠르게 시정 업무를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시장권한에 행 체제 중 공백 없는 시정을 펼친 오택립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뭄피해로 시름이 깊어가는 농민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이번 임기는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4년의 시작이다”며 “조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펼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공약들에 대한 실천계획을 꼼꼼히 세워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의 민선7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며, 내달 1일부터 4년 동안 3선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준 기자

## 군산시, 2022년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2기 강좌 모집

군산시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 2기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400 강좌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 접수 방법은 기존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1기 수강생 과반수가 신청할 경우, 온라인 인증 절차 없이 신청서 작성 후 교육지원과 방문 제출로 간소화했다.

신규 수강생들은 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 동네문화카페 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학습동아리 형태의 자율 학습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성장반을 개설해 현재 1기는 27강좌가

운영하고 있으며, 2기 때는 학습자의 과거 경험을 인정해 신청 요건을 동일 강좌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참여자로 완화시켜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기는 357강좌 모집을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 1,9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6월 둘째 주에 종강을 앞두고 있으며, 2기가 새롭게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주간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 토요일 나운동 강천사가 광장에서 지속성장반 참여하는 강사와 수강생이 자진해서 그 동안 배운 경험을 판매, 전시, 체험 등의 재능 나눔 프리마켓으로 즐거움과 보

람을 선사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 갤러리에서 캘리그래피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들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세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인 가족 단위로 동네문화카페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매니저를 디지털 전문가로 양성하여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학습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바다환경지킴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군산시가 연안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해신동주민센터에서 바다환경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은 전담 인력으로 해안가에 있는 해양쓰레기 심각 지역 등에 대한 상시 관리와 대국민 계도 및 투기행위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육도변을 비롯해 소룡·해신·경암·구암동 등에서 총 31명의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서 이뤄졌으며 2시간 동안 안전보건교육 일반과 사고사례 예방 대책, 그리고 안전의식 고취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축산악취 민원 예방 ‘합동점검’

익산시가 도심권 축산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여름철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예방한다.

시는 7월 말까지 축산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동·춘포면·오산면 일대 축사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무단 방류 여부와 무허가 축산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 개선을 촉구하고 무허가·무단 증축시설은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악취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악취 모니터링시스템과 악취 측정 차량을 활용한 악취감시시스템으로 악취 발원지를 추적·점검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도심권 축산시설 관리를 한층 더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준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